
공무국외출장보고서

(2022년 09월)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목 차

I. 출장개요	2
- 출장일정	
- 출장자명단	
- 출장 추진 배경 및 목적	
- 그간 출장 추진 방향	
- 출장단 연구 과제	
II. 주요일정	5
III. 주요 연수내용 및 결과	
1. (사)푸른아시아 몽골지부 & 「수원시민의 숲」 조림지	6
2. 몽골 국립현대미술관 & 몽골 국립역사박물관	14
3. 이태준 열사 기념공원	18
4. 세계유산 테를지 국립공원 & 몽골 전통공연 투멍이흐	20
- 방문개요	
- 연수내용	
- 시사점	
IV. 출장 총평	22

I

출장개요

□ 출장 일정

- 기 간: 2022. 9. 19.(월) ~ 9. 25.(일) [6박 7일]
- 지 역: 몽골

□ 출장자 명단

- 출장인원: 총12명
 -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 9명
 - 수행공무원 3명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담당 역할)
수원시의회의원 (9명)	단 장	조 문 경	▶ 정책 사례 비교, 벤치마킹 등 ▶ 결과보고서 작성
	부 단 장	현 경 환	
	단 원	김 정 렬	
	“	장 미 영	
	“	이 찬 용	
	“	오 혜 숙	
	“	오 세 철	
	“	박 영 태	
	“	배 지 환	
의회사무국 (3명)	주 무 관	이 정 수	▶ 주요 방문기관에 대한 자료 수집 등 ▶ 방문기관 우수사례 수집 등
	“	손 원 경	▶ 출장단 일정 운영 및 지원 ▶ 각종 자료 기록
	“	신 원 용	▶ 홍보 및 촬영

□ 출장 추진 배경 및 목적

① 「수원시민의 숲 조성사업」

- 사)푸른아시아와 수원시가 공동협약을 통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수원시민의 숲 조성사업’이 2020년에 마무리된 바 있음.
 그 간의 모니터링, 기술개발, 수종의 적정성 등 사업성과를 토대로 자동관수 시설 도입, 수종변경, 현지인 인식 개선 등 발전적인 사업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현지인 교육, 양묘장 운영, 자동관수시설 도입을 통한 조림지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우리 시가 수범사례로 꼽혀 인천시, 고양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바 있음.

i) 종료사업이긴 하나 현재 기 식재된 조림지 유지 관리 상황을 돌아봄으로써 세계 사막화 방지사업의 국제적 모범 사례지로서 향후 지속가능 사업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분석 등이 필요해 보임.

ii) i)의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신규 투자가치 분석 및 유지관리비 지원 등에 대해 의회차원에서의 사업에 대한 재 평가와 논의가 필요함.

⇒ 그동안 몽골과 우리 시의 우의 증진 및 상호교류의 바탕이 되어 온 본 사업에 대해 몽골 현지에서 체감하고 있는 본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해 재평가하고 **양국 도시 간 우호 증진의 토대로 관광, 문화, 예술 관련 사업의 교류의 기초로 삼고자 함.**

② 「미술관 & 박물관 등 문화 예술 교류 확대」

○ 2018. 11월~3월 까지 수원시립 아파크 미술관에서는 카자흐스탄 문화예술을 알리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의 근현대 미술을 소개하는 최대 규모의 기획전을 개최하여 시민의 호응을 얻은 바 있음.

⇒ 양국 도시 간 우호 증진의 토대로 **몽골의 국립박물관 및 국립 현대 미술관을 방문 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문화예술 교류와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함.**

③ 「유네스코 세계유산 활용 방안 연구」

○ 문화재청의 세계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방안 계획에 따라 우리 시 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지속가능한 보존체계 마련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유네스코지정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테를지 국립공원과 몽골 전통민속 공연 보존 체계와 활용사례 연구함**으로써 우리 시 문화, 관광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우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④ 「체류형 관광 추진 사업 재점검 및 몽골 관광 특화 사업 강점 분석」

○ 여러 해에 걸쳐 우리 시의 체류형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져오고 있으나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체류 관광 활성화는 숙박, 쇼핑 등 2차 관광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체류형 관광 추진 사업을 재 점검함으로써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여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음.

⇒ 세계관광여행 협회로부터 안전한 여행지로서 스탬프를 획득한 바 있는 유목민족의 전통가옥을 체험해보고 우리 시의 한옥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몽골 관광 특화사업의 강점을 분석함으로써 체류형 관광 사업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그간 출장 추진 방향

-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해 온 사업 및 방문 기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간담회 진행
- 본 출장을 통해 수집해야 할 자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출장자가 각각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함으로써 보다 책임 있는 출장 추진
- 수집된 자료가 향후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피드백 병행

□ 출장단 연구과제(자료 수집 계획)

방문지	자료 수집내용
(사)푸른아시아 몽골지부 수원시민의 숲 조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림지 적정성 ▶ 조림수종 적합성 ▶ 식재방법의 타당성 ▶ 국제NGO푸른아시아의 ‘수원시민의 숲’ 유지·관리현황 자료 (자동관수시스템 효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 ▶ 황사·미세 먼지 발원지 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사막화 방지 등 사업 성과 분석 ▶ 소형 태양광 발전기 보급 현황(간담회) ▶ 저탄소녹색환경을 위한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 자료 ▶ 몽골 현지에서 체험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한 평가
이태준 열사 기념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인들에게 근대적 의술을 베풀면서 각지의 애국지사들과 연계하여 항일 활동을 전개한 이태준 열사의 활동 자료 ▶ 이태준 기념공원 건립 배경 ▶ 이태준 기념관 및 기념공원 관리·운영주체 등 관련 자료
테를지 국립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지정 세계유산의 가치와 보존 과제 연구

방문지	자료 수집내용
게르 캠프 숙박체험	▶ 몽골은 모든 지역에 대해 세계관광여행 협회(WTTC)로부터 ‘안전한 여행지(Safe Travels)’ 스탬프를 획득한 바 있어 유목민족의 전통 가옥(게르 숙박) 체험을 통해 안전한 관광 여행지로서 몽골 관광 특화사업 관련 자료 수집
몽골전통공연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몽골 음악과 몽골 민속 공연 문화체험을 통해 몽골인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
몽골 국립현대미술관	▶ 그간 미술관, 박물관을 중심으로 문화적 교류를 이어온 한국과 몽골의 문화 교류 활동 자료 ▶ 몽골 현대 미술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미술 문화 교류의 기반을 마련
몽골 국립박물관	▶ 지난 10여년간 우리 시와 상호 교류를 이어온 몽골에 대한 이해 자료 수집(역사, 종교, 풍습, 전통 등)

II

주요일정

일 자	지 역	주 요 일 정	비고
1일차 9월19일(월)	인천 울란바타르	인천공항 출발 몽골 칭기스칸 국제공항 도착 이태준 열사 기념공원 자이승 승전 기념탑	
2일차 9월20일(화)	울란바타르 테를지	(사)푸른아시아 몽골지부 방문 간담회 「수원시민의 숲」 조림지	
3일차 9월21일(수)	테를지 울란바타르	테를지 국립공원	
4일차 9월22일(목)	울란바타르 엘승타사르해	몽골 국립현대미술관 몽골 국립 박물관	
5일차 9월23일(금)	엘승타사르해 울란바타르	게르캠프 관광 특화사업(숙박 체험)	
6일차 9월24일(토)	울란바타르	몽골 근현대의 상징 수호바타르 광장 몽골전통공연(투멍이흐)	
7일차 9월25일(일)	울란바타르 인천	울란바타르 출발 인천공항 도착	

Ⅲ

주요 연수내용 및 결과

1. (사)푸른아시아 몽골지부 & 「수원시민의 숲」 조림지

① 방문개요

- 방문일: 2022. 9. 20.(화) 10:00 ~ 16:00
- 간담회 참석인원: 총15명(수원시의회 출장단 12명, 푸른아시아 3명)
- 몽골지부 현황
 - 본사직원 20명, 파견직원 5명
 - KT에서 후원 건립한 건물 무상 임대 사용 3층 건물과 양묘장
 - 몽골 조림장(에드덴, 바양노르 등 8개소)

② 연수내용

1) 몽골의 기후변화 현황

- 몽골 기온은 지난 79년 동안 2.25도 상승
(1990년부터 가속화, 2007년부터는 심각하게 상승(※ 세계: $0.93 \pm 0.08^{\circ}\text{C}$)
- 몽골 강수량은 7.3%감소, 몽골의 산림면적은 전국토의 36.8%
- 몽골 76.9% 사막화가 되고 있는 이러한 기후 위기 속에서도 가축 두수는 늘어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해 드러나는 피해 상황
 - ▶ 3,500개의 호수와 연못 중 1,166개 소실
 - ▶ 3,800개의 강 중 887개 소실, 60개 온천 사라짐
 - ▶ 조드 피해(몽골 이상 기후 현상: 흑한, 폭설, 겨울가뭄)
- (→ 1999~2001년: 가축 약 1천 1백만 마리 동·아사, 2009~2010년: 가축 약 1천만 마리 동·아사, 2016년: 가축 약 80만 마리 가축 동·아사)

2) 사)푸른아시아의 미션과 비전

- 사)푸른아시아(Green Asia Network)는 기후변화, 사막화, 황사 등의 국제 환경 문제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의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사막화 방지사업 및 환경보전, 경제 발전, 사회 통합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단체임.
- 푸른아시아의 목표: ‘나무를 심고, 사람을 심어 땅을 살려내고 공동체를 복원하여 환경 난민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자’

- mission: 기후 변화에 피해받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 모델을 만들고 확산
- Vision: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3) 사)푸른아시아의 핵심 활동

주요 사업	내용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 2000년~, 10개 지역, 850ha, 약 850,000본 조림
임농업교육센터 운영	▸ 2017년 준공, 총 누적 교육 수료생 2,556명
유실수 가공공장 운영	▸ 2021년 준공, 연간 600톤 이상 생산 설비 확충

4) 몽골의 기후변화 위기대응: 푸른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모델 방식

- 환경(환경복원), 사회(주민역량개발), 경제(자립능력향상) 세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통합적 접근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주민자립모델 3단계: Participation(주민조직 구성을 통한 사업 참여) - Empowerment(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역량 강화) - Ownership(주민 주도 지속 가능한 숲 관리 모델)
 - 주민자립컨설팅(자체 수익 사업개발(양묘사업, 영농사업, 기타 사업))
 - 판로개척 지원
 - 유실수 수매, 유실수 가공공장 구축

5) ‘수원시민의 숲’(2011년~2020년)

(1) 추진목적

- 가. 동북아시아 공동의 환경문제이자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몽골 발원 황사 저감
 - 동북아시아 공동의 환경과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기여
- 나. 국제환경문제 해결 참여를 통한 환경수도 수원시의 이미지 향상
 - 범 시민적 참여를 위한 계기사업 발굴 및 주민 자부심 확대 도모
- 다. 국내 대기환경 개선 활동과 국제 환경보전 활동의 결합모델 창출
 - 국내의 ‘황사저감’과 국제적 이슈인 ‘사막화 방지’ 과제에 동시 대응

(2) 사업추진 방향

- 가. 숲 조성을 위해 몽골 에르덴 지역의 생태환경 복원 추진
 - 방풍림 조성을 통해 급속하게 진행 중인 사막화 방지 효과 분석
 - 사막 지역의 토양 복원 및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

- 나. 수원시 소재 기업, 시민단체, 학생 등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
- 다. 몽골 내 사막화방지사업의 파트너십(정부, 국제기구, 지자체, 대학, NGO 등) 확대
 - 추진 사업의 협력 범위 확대 및 지속 가능성 확보
- 라. 전문가 파견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3) 사업내용

- 가. 사업명: 몽골 “수원시민의 숲” 조성 사업
- 나. 사업기간: 2011년 ~ 2020년
- 다. 사업비: 총1,719,000천원(푸른아시아 자부담 제외)
- 라. 사업 대상지역: 몽골 투브아이막(道) 에르덴솜(郡) 일대
- 마. 주요 사업 내용
 - 조림 사업: 사업 대상 면적 총 100ha, 100,000주 식재
 - 조림 기반시설 구축
(초지관리 집중구역, 유실수 집중 관리 구역, 방풍림, 경관림 등으로 구간을 정하여 식재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조림 사업장 주변은 사막화가 상당히 진행되어가고 있음)

③ 주요 질의 · 답변(Q & A)

Q1. 현경환 의원: 면적이 30만평 정도 되는 곳에 사막화를 방지하려는 주된 목적과 더불어 현재는 조림지에 비타민 나무를 많이 심어 열매 생산성을 높이고 판로를 개척하는 등 주민자립 사업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열매 등 생산성을 높이려면 잡초 제거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영농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 현재 조림지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사막화 방지 이 두 사안을 두고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사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잡초제거 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막화방지와 토양의 생산성 고양시키는 것이 제1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토양의 질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토양상태에 자생이 가능한 비타민 나무의 생산성 향상을 높다양한 수종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김정렬 의원: 날라흐구와 에르덴 지자체간의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정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아직까지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한 지역의 경계선이 겹쳐 있다보니 1980년부터 시작한

관할 지역에 관한 분쟁은 아직도 국회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업장이 두 개의 관할 구역인 날라흐구와 에르덴으로 중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에르덴은 법원에서 경계 모호한 부분에 대해 결정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행동은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날라흐구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리드하고 있어 푸른아시아로서는 장기적으로 울란바타르 날라후구와 협력해서 이 사업이 울란바타르 관할로 들어가고, 거기서 새롭게 토지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월 말에 수원시에서 이곳을 방문하였을 때에 날라흐구 구청장을 함께 만나봤고, 구청장이 의욕적으로 협력할 의사를 내비친 상황이라 향후에는 에르덴보다는 날라흐구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Q3. 조문경 의원: 사막화방지를 위해 푸른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되고 있는데, 이곳에 살고 있는 몽골 시민들은 이 사업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이 사업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있으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 몽골의 학교와 여러 기관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몽골의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교육을 하고 있으며, 사막화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산림청에서도 2007년부터 몽골과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제2기로 사업을 종료하려고 했으나 몽골정부에서 현 상황에 대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산림청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나라 산림청은 올해부터 제3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산림청의 제3기 사업은 나무를 심으려고 해도 심을 나무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양묘장 조성 기술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3년간 15ha의 양묘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몽골 정부는 전방위로 해외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푸른아시아의 경우에도 361개가 연대하고 있는 주요 광산업체들이 찾아와서 푸른아시아의 모델을 배우고 싶고, 배우고 싶다는 의견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몽골정부가 올해부터 광산업체에 공문을 보내 광산업체가 나무를 심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광산업체들은 나무를 구하러 다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푸른아시아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몽골에도 다음 달에 우리나라의 산림청과 같은 기관이 개청하게 됩니다. 몽골에는 330개의 솜이 있는데 180개의 솜이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조림사업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이며, 푸른아시아도 180개 솜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수원시민의 숲을 보면 상당히 거칠고 조악해보이고 완성도가 떨어진 조림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민의 숲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후발주자 사업장들이 상당히 개선되어 있습니다. 후발주자로 들어선 KB국민은행에서 후원한 'KB국민의 맑은 하늘 숲'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을 조성하면서 수원시민의 숲에서 겪은 시행착오들을 통해 마련된 매뉴얼을 토대로 접목하고 적용하여 이제는 온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원시민의 숲'은 '수원시민의 숲'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숲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 등이 진화하고 새로운 방법들로 전수되어 몽골의 사막화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지금도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Q4. 배지환 의원: 몽골의 2030세대들이 농업에 관심이 없으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어려워 보이는데 농업에 대한 몽골 청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정부차원에서 국립대학에서라도 농업관련 학과를 개설하는 등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있는지요?

☞ 한국에는 젊은 층이 농촌에서 창업을 할 때 농업으로 성공한 모델을 주축으로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해 볼 수 있는데, 몽골 청년들에게는 보여지는 성공 모델이 없기 때문에 농업을 선호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몽골 대학에서 산림, 농업학과를 개설하였다가 모집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몽골 청년들은 몽골에는 장래를 걸 만한 사업은 없으며, 이런 전반적인 상황으로 해외에서 가능성과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푸른아시아에서는 관광지 옆 도로에 사업장을 조성하고 청년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와 카페 등 문화공간이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 청년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진화시켜보려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에 농업학과 개설 등 농업육성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 몽골 대통령이 긴급하게 몽골 산림총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교육부장관이 천 명의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학과를 개설하는 등 많은 사업추진에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현재 예산 지원에 대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협력국가나 단체에 더 많은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5. 조문경 의원: 가뭄에도 오히려 몽골의 가축 수는 늘고 있고, 가축 수가 늘어남에 목초지 소실로 사막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몽골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요?

☞ 몽골의 주 사업은 광산업이며, 목축업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방목형 목축업 형태로는 사막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료 작물을 활성화하는 재배단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목장형 형태로 바뀌어나가지 않으면 현재의 형태로는 사막화가 더 가속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료 작물 연구와 함께 저희 조림 사업장 사업이 농업, 임업과 더불어 축산업을 결합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몽골 국민은 목축업을 가장 잘하는 국민입니다. 이처럼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배제시키고 다른 사업을 찾는 것 보다는 몽골 국민이 가장 잘 하는 사업과 겸해서 함께 성장하고 선순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Q6. 현경환 의원: 유실수 생산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현재 수작업 방식이 아닌 기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요?

☞ 몽골은 기후 자체가 추위와 더위가 반복이 되다보니 유실수 상품의 질이 떨어집니다. 나뭇가지 자체를 잘라내는 방식보다는 나뭇가지를 살리면서 열매를 수확하는 방법으로 진동기 방식과 흡입기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작업으로는 부가가치를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며 장비마련 등 예산의 문제는 늘 있습니다.

④ 방문결과 및 시사점

○ (사)푸른아시아 몽골지부

- 주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주민들의 숙식이 제공되는 교육을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었음.
- 조림장의 문제점을 주민이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조림장 주민과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음

○ ‘수원시민의 숲’ 조림지

- 기존의 51%의 수목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음.
- 비타민나무는 수량이 증식되어 열매 수확이 한창이었고, 인근 학생들이 게르 숙박체험을 하면서 열매 수확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음.
- 토양피복율이 높아지고, 습기 및 영양분이 증가하여 유기물층의 발달이 시작되었다고 함. 식생의 번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시사점

- ‘수원시민의 숲’은 사막화방지 사업의 선발주자로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축적된 매뉴얼을 바탕으로 후발주자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또 다른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음. 비록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제2, 제3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현재까지도 그 가치가 발현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시사하는 바가 큼.
- 전 세계가 처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상임위 소관 사업을 떠나 간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환경문제로 시작된 ‘수원시민의 숲’사업이 환경문제 대응에만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청년과 주민들이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도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 사업의 가치가 있어 보임.
- 문화와 관광 분야를 소관 사업으로 두고 있는 본 상임위에서는 몽골 조림사업장을 인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게르 숙박체험, 낙타, 말 트래킹 관광, 문화 사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매우 인상적이었음.
- 특히, 조림사업장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심어주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환경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드넓은 사막 사이에 작은 조림지 일지라도 그 가치는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 사이에서 희망을 보여주는 강력한 모델이 아닐까 사료됨.
-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할 때가 많은데, 작은 가능성이라도 오랜 시간을 거쳐 가며 실패해가며 다듬어갈 때 보다 완성된 정책이 마련되어 하나의 제도로써 시민의 삶에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생각됨.



(사)푸른아시아와의 간담회



(사)푸른아시아 몽골지부 방문



수원시민의 숲 조림지 방문



비타민 나무 열매 수확 현장, 토양 분석 결과 브리핑 등

2. 몽골 국립현대미술관 & 몽골 국립역사박물관

① 방문개요

○ 몽골 국립현대미술관

- 방문일: 2022. 9. 22.(목) 11:00
- 간담회 참석인원: 총17명(수원시의회 출장단 12명, 몽골국립현대미술관 5명)

○ 몽골 국립역사박물관

- 방문일: 2022. 9. 22.(목) 15:00
 - 간담회 참석인원: 총15명(수원시의회 출장단 12명, 몽골국립역사박물관 3명)
-

② 연수내용 & 주요 질의 · 답변(Q & A)

1) 몽골 국립현대미술관

- 1991년대 개관, 한국과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양국의 문화교류의 기반을 다지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미술관에서는 현대 미술품, 조각 품 등 4,000점 전시되어 있고, 수장고에도 상당량의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음.
- 정부에서 운영하는 현대 미술관은 한 곳이며, 사립 미술관은 30개 정도 있음.
- 현대 미술관은 50~60회 정도 전시회를 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은 외국에서 이곳 미술관에 전시를 하고 있으며, 인근 카타르 국가에서 몽골의 전시물품을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 전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임.
- 한국과도 한·몽 초대작가 미술 교류전 등 다양한 교류 전시를 이어오고 있음.

Q1. 조문경 의원: 미술관에서 해외 작품 구매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 ☞ 몽골 국립현대 미술관은 대부분 국내 작품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술관에서는 과거의 몽골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이용한 전통 무늬나 문양으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1972년에 전시한 바 있으나 50년 만에 다시 선보이고 있으며, 이 특별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서 유럽의 미술관과 많은 화가, 디자이너들이 본 미술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Q2. 장미영·이찬용 의원: 몽골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자부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미술품은 어떤것인지요? 징기스칸 시대의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는지요?

- ☞ 몽골 정부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미술품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국립현대 미술관에는 총5가지 그림이 해당됩니다. 몽골의 유명한 화가가 1921년에 그린 그림으로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은 당시의 미술임에도 현대의 화법이라고 해도 무색할 만큼 잘 그려진 작품으로 현재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몽골 국립현대박물관은 소장품은 많으나 전시공간 부족으로 모든 작품을 전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13세기 원나라 당시의 미술품은 현재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교대하면서 전시·운영하고 있습니다.

Q3. 배지환 의원: 자이승 탑을 방문했을 때 상단에는 천사, 하단에는 용이 그려져 있어서 동·서양의 문화가 융합되어 있어 보였는데, 이처럼 동서양이 융합되어 나타나는 작품이 많은지요? 또한, 현대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가 되고 있는지요? 작품을 선정하는데 있어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요?

- ☞ 몽골 현지인들을 보면 아시아인이지만 유럽의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전시품을 보면 서양문화를 받은 것처럼 서양 문화가 스며든 전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현대 화가들이 그린 그림도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 화가들은 유명한 러시아 대학교에서 교육받은 화가들이 많은 편이며, 주로 그들의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Q4. 조문경 의원: 우리 시 미술관에서도 여러 나라의 작품을 전시하는 국제전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몽골 국립현대미술관과의 만남이 수원시와의 교류의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 ☞ 코로나 펜데믹 이전에 본 미술관에서는 한국의 여러 미술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방문에서 느낀 점이 있는데, 우리 몽골에서는 유물이 발견되면 그 유물을 다른 곳에 옮겨서 전시를 하는데, 한국은 유물이 발굴된 곳에서 전시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보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모습에서 많은 점을 배웠으며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2년 동안은 코로나 영향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얼마 전부터 몽골에서도 전시관을 열고 관광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수원시와 좋은 기회를 만들어 국제전을 함께 개최하는 등 다양한 교류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몽골 국립현대미술관장과의 간담회



몽골 국립현대미술관 관람

2) 몽골 국립역사박물관

- 역사 박물관은 원래는 1971년 혁명 50주년 기념으로 혁명박물관으로 건립되었다가 사회주의 붕괴로 1991년 5월, 민속박물관으로 개편하였음. 이후 98년부터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전시물을 전시하고 있음.
- 박물관에는 30,000여 품목을 전시하고 있으며, 미국, 스웨덴, 한국, 일본 그리고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관련 유물 전시를 하였으며 향후 외국의 여러 나라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국립역사박물관에는 고고학발굴, 유물, 조사, 교육 전문가 등 6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Q1. 조문경 의원: 과거부터 현재까지 몽골과 한국은 대립과 화해의 역사를 보내고 오늘날의 몽골과 한국은 많은 부분에 있어 다양한 교류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는 박물관이 2개가 있는데,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다양한 박물관 간의 교류를 통해 우호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한국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현대까지 모든 문화와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대립보다는 화해의 역사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국립역사박물관과 몽골 고고학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의 문화재를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몽골과 한국이 함께 진행하는 다양한 박물관 유물 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국의 수원시 박물관과도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몽골 국립역사박물관장과의 간담회



몽골 국립역사박물관 관람

③ 시사점

- 박물관, 미술관의 시설이나 규모, 각종 미술품이나 유물의 전시기획, 유물 보관방법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몽골보다 선진화되고 비교우위에 있을 수도 있음. 그러나 한 국가의 역사를 담아 내려온 유물과 미술 작품에 있어 비교우위는 비교를 시도하는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됨.
 - 2018년 우리 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는 카자흐스탄 문화 예술을 알리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의 근현대 미술을 소개하는 최대 규모의 기획전을 개최하여 시민의 호응을 얻은 바 있음. 이는 전시된 작품들 속에 그 나라만의 삶과 애환을 담고 관람객들의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특히, 지정학적 위치와 시대적 격변을 거쳐 온 나라의 모습을 예술에 담고 있고, 제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상실과 발전을 거듭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국가의 자유롭고 독특한 모습을 예술품에 담고 있었기에 시민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고 생각됨.
 - 몽골 문화와 예술 역시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유목민의 애환과 산업발전에 따른 도시 집중 현상 등이 그대로 녹아 뚜렷한 색채와 기운이 예술 작품에 그대로 담겨져 있고, 종교적 색채와 정치적 이념 등이 시대에 걸쳐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이렇듯 국가 간 문화의 교류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풍성한 예술의 장이라고 생각됨.
 - 그동안 수원시민의 숲으로 다져진 양국 도시 간 우호관계와 이번 몽골 박물관과 미술관 방문을 계기로 몽골과의 문화, 예술 분야 등 다양한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 카자흐스탄 국제전을 통해 받았던 그 감동을 재현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임.
-

3. 이태준 열사 기념공원

① 방문개요

- 방문일: 2022. 9. 19.(월) 17:30
 - 참석인원: 총12명(수원시의회 출장단 12명)
 - 위치: 울란바타르 북드칸 산 남쪽 기슭 자이승 승전탑 아래에 위치
 - 관리·운영: 주몽골대사관, 재몽골한인회, 연세의료원, 몽골 정부측 인사로 구성된 ‘이태준 기념공원 관리위원회’가 공원의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② 연수내용

1) 애국지사 대암 이태준(1883-1921)

- 1883년에 태어난 이태준은 1907년 세브란스 의학교에 입학하여 1911년에 졸업
- 의학교 재학중인 1910년 고문 후유증으로 세브란스에 입원한 도산 안창호를 만나 독립운동에 나서기로 결심함.
- 졸업 후 1912년 중국 남경에서 기독교 의원으로 의술활동을 펼치다가 독립운동가이자 사촌 처남인 김규식 선생의 권유로 몽골로 가게 됨.
- 독립운동을 주목적으로 몽골에 갔지만 이태준은 몽골인이 처한 의료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고, 후레에 동의의국이라는 병원을 열고 헌신적인 의료활동을 전개함. 이 활동이 몽골인에게 알려지면서 그를 신의로 떠받들기 시작했으며 복드칸 정부에도 알려져 어의로 활동하게 됨.
- 1915년 복드칸의 명령으로 몽골 최고 권위의 훈장을 수여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로서의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아 의열단에 가입한 뒤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음. 하지만 그는 1921년 후레를 장악한 반 볼셰비키파 스테른베르크의 백군에게 잡혀 처형되고 말았음.
- 이후 이태준의 행적을 찾는 운동이 별 성과를 찾지 못하다가 몽골 국립문서보관소를 통해 1915년 5월 30일자 서류가 발견됨으로써 그의 행적이 드러나게 됨. 그 내용으로는 복드칸 정부 당시 외무부의 문서로써 몽골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이태준의 공을 높이 평가하여 복드칸의 명령으로 최고 투스멜 직위와 함께 '에르덴 오치르'훈장을 수여한다는 내용이었음.
- 2007년 양국 정상회담 시 기념공원의 영구 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년 1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몽골 자연환경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부지의 안정적 사용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0년 6월 국가보훈처 및 연세의료원의 지원을 받아 공원 내 이태준 기념관을 개축하였음.

③ 시사점

-
- 2000년 7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는 한국인들과 몽골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세기 초 몽골 땅에서 의사이자 독립운동가로서 값진 삶을 살다간 이태준 열사에 대한 묘비 제막식이 있었음. 1914년 몽골에 들어가 38세의 젊은 나이로 비운의 죽음을 맞은 이태준 열사의 행적을 찾고 그의 과거 활동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한국과 몽골에 거주하는 한국인 사이에서 진행되는 동안 몽골 정부는 대통령궁 근처에 부지 2천평을 제공하여 본 기념공원을 조성하였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음.
-

- 고려가 무너진 후 몽골과 한반도 사이에는 수백년 동안 거의 교류가 없었으나, 그 오랜 단절의 역사를 이은 인물이 바로 이태준 열사라는 점에서 근세 역사에 두 나라의 관계를 이어주는 출발점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몽골 한인회에서는 이태준 열사 기념공원에 디지털 전시실을 구비한 기념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몽골 동포의 자녀와 다문화자녀, 몽골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며 이태준의 뒤를 잇는 행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함.
- 짧은 생애동안 구국운동에 동참하고 항일운동의 차원을 뛰어넘어 국적과 인종을 넘어 몽골에서도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하였다는 데에 큰 감동을 받았으며, 게다가 이태준 열사의 업적이 역사의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닌 현재까지도 후손들이나 몽골 국민들을 통해 또 다른 국제교류의 행보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이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음.



이태준 열사 기념공원

4. 세계유산 테를지 국립공원 & 몽골 전통공연 투멍이흐

1] 방문개요

- 방문일: 2022. 9. 21.(수), 9. 24.(토)
- 참석인원: 총12명(수원시의회 출장단 12명)

② 연수내용

1) 테를지 국립공원(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 울란바타르 동북쪽 70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몽골 최고의 휴양지로 툽강과 산, 바위, 계곡, 나무와 초원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이 공원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음.
- 테를지에서는 말을 타고 초원과 숲을 누빌 수 있는 관광상품이 성행하고 있으며, 게르를 활용한 숙박시설인 게르 캠프들이 즐비하고 있음.
- 테를지 게르들은 대부분 게르 내에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갖춘 편리함을 갖춘 숙박시설로 마련되어 있어 몽골의 전통 가옥을 체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마련되어 있음.

2) 몽골 전통공연 투멍이흐(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 후미는 몽골의 전통 배음 창법으로 한 사람이 두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듯한 기법임. 한번 부를 때 동시에 두 개의 소리를 내야하므로 굉장히 어려운 창법으로 이는 자연에서 나오는 산과 강, 바람, 동물 등의 소리를 표현한 것임.
- 지속적인 저음과 함께 화음이 이루어지는 선율을 만드는 것으로 깊이 울리는 후미 창법과 휘파람 소리를 내는 후미 두가지 양식으로 나뉨.
- 후미는 엄숙한 국가 행사에서부터 가정의 잔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생활에서 연행되며, 목축하는 동안에 갓난아이를 재울 때에도 이 창법으로 노래를 부름. 후미는 전통적으로 예능 보유자가 전수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구전하며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음.
- 후미는 몽골서부에서 전승되어 발전하였으며, 러시아의 투바, 칼미크, 알타이 공화국과 중국의 네이멍구 지방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미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몽골과 투바에서 후미의 대가들을 초청하여 몽골의 전통적인 후미를 배우고 있음. 이것은 몽골뿐만 아니라 외국, 관련 부족에서도 후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음.

③ 시사점

-
- 몽골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몽골은 그 보존과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몽골 국민들 또한 문화재 보호에 대한 관심도 낮았음. 또한 관련 공관 임직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문화유산이 파손되거나 실무자의 실수, 정보부족으로 역사 및 문화유적지의 소유권이 민영화된 사건도 있었음.
-

-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알리는 것이 필수적임. 또한, 국가 보존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이에, 몽골 울란바타르시에서는 ‘문화유산 보존 및 보호’에 대한 세미나를 한국과 함께 추진하면서 문화재 보존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해결 방안 마련하고 전문가를 초청해 몽골 문화재 보존 전문가를 양성하며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음.
- 우리 시 또한 몽골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현재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지속가능한 보존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방안을 모색하며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세계문화유산은 유형적인 건축물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공동체를 이루어 삶을 나누는 공간으로써의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임.
 - 이를 위해서는 세계문화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인근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홍보 전략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또 다른 전략 구상에 접목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문화재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여 세계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있어 지역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함.

IV

출장 총평

문화체육교육위원장 조 문 경

쉽게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지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 갈 수 없다는 데에 대해 격하게 공감하는 시간을 보내왔을 것이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전반기 상임위의 국외출장이 계획되고, 이를 준비하면서 출장 목표와 그에 따른 출장 국가, 출장 과제 등을 선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았다.

대개 국외 출장이라고 함은 해외 선진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우수 사례를 수집하여 의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언하는 일련의 과정일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시작된 출장 준비 과정에서 우리 출장단은 지방의원으로서 새롭게 발을 내딛는 초선의원님들을 위해 지방의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목적도 추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일방적으로 듣고 오는 연수가 아닌 지방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몽골을 출장국가를 선정하였다.

전 세계가 초유의 코로나 시대를 겪고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는 각각 살아가는 따로따로의 사회가 아닌 누군가는 앞장을 서서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 과연 누가 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쉽사리 듣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어느덧 스스로 해법을 찾아서 국제사회를 이끌어야 하는 선도적 위치에 와 있으며, 우리나라 대표 도시에 걸맞게 우리 시에서도 10여년 전부터 몽골이라는 국가의 한켠에서 ‘수원시민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선도적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사실 ‘환경’이라는 과제가 우리 상임위 소관사무와는 무관해 보일지는 모른다. 하지만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마비시킬 수 있기에 환경에 대한 고민은 비단 소수 몇몇의 고민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데에 공감하고 준비한 이번 출장에서 ‘수원시민의 숲’은 상임위를 떠나 의원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수원시민의 숲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과연 끝이 보이지 않은 광활한 대지 속에서, 그리고 이미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 땅에서 불과 작은 조림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밀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닐까,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고 출발한 방문지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번에 방문한 수원시민의 숲 조림지는 황량한 바람이 불고 있는 사막 옆에 아주 작은 수풀을 이루고 있었다.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곳은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어오고 있어 방풍림만으로는 조림지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다.

그러나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이는 환경문제로 시작된 ‘수원시민의 숲’ 사업이 환경문제 대응에만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청년과 주민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였다.

기후 변화에 따른 사막화 방지를 위해 시작된 사업이 몽골에서는 어느덧 ‘새로운 희망의 모델’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문화와 관광 분야를 소관 사업으로 두고 있는 본 상임위에서는 몽골 조림사업장을 인근 주변 관광지과 연계하여 게르 숙박체험, 낙타, 말 트래킹 관광, 문화 사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수원시민의 숲 조림지가 몽골의 미래를 비관하며 국가를 이탈하고 싶어하는 몽골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특히, 조림사업장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심어주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환경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지를 몸소 체험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드넓은 사막 사이에 작은 조림지 일지라도 그 가치는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 사이에서 희망을 보여주는 강력한 모델이 아닐까 생각된다.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일이 쉽지 않을 일인 것처럼 사실 우리 의원으로서의 역할 또한 처음부터 쉽게 정립되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출장 시 방문하여 알게 된 이태준 열사는 몽골에서 짧은 생애 동안 구국운동에 동참하고 국적과 인종을 넘어 몽골에서도 의술로써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하여 타국에서 훈장을 받고 몽골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인물이다. 이태준 열사의 업적은 과거의 역사로만 끝나지 않고 현재까지도 후손들이나 몽골 국민들을 통해 또 다른 국제교류의 행보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에서 수원시민의 숲과 맥락이 같지 않나 생각이 든다.

우리가 늘 놓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은 매일 보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 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무뎠질 수 있는 잘 만들어진 사회제도라든지, 예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들에게 늘 감동을 주고 있는 문화, 관광자원 등등 우리에게 늘 익숙해서 소홀해지고 관리되지 않던 것들이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이색적이고 생소한 경험으로 다가가 감동을 느끼고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사회제도, 문화유산 및 관광 콘텐츠의 가치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고찰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보다 더 선진 제도나 가치가 부여되는 정책 도입에 있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이렇듯 이번 출장은 우리의 자원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려는 노력이며, 그 중심에서 우리 위원회는 함께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외출장을 마치고 연구실에서 다시 만났다. 금번 출장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다. 해를 거듭해가면서 상임위 소관 현안 사업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다양한 논의 속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며 분명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을테지만,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우리 상임위원들 모두 이번 출장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연수의 경험이 당장 우리 앞에 커다란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의 안목과 사고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어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정책방향 도출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 위원회와 연관된 모든 분야 뿐만 아니라 의회운영 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